

여야, 100일간 예산·입법 전쟁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코로나 극복 입법 중점 논의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감·예산 심사 등 곳곳 지뢰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원,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가 국민이 무사히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여야를 뛰어넘는 소통의 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비정적 법안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된 8월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 3205건 중 단 1.9%인 6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여당을 향해서는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진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 대표와 인사…“줄을 서시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1일 회동이 취소되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주 원내대표 측이 못하겠다고 알려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정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만나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4개 특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회동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는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비대면 회의 안전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통합당 측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김종인 첫 만남… 추경 공감대 원구성 이견

이, 통합당 예방…원 구성 재협상 질문에 “국난극복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험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예우를 갖춰 화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좀 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어렵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 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위낙 위기가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어 통합당의 혁신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4·15 총선 공통 공약과 양당의 공통된 정강정책을 입법화하자”며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 2차 확산을 극복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추경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빨리 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 역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진 주 원내대표 예방에서도 환담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떼자, 이 대표는 “주 대표의 인품에 반했고 호모한다”고 했다.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 ‘국민의힘’ 개명안 가결

‘4선 연임 금지’ 정강정책서 제외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새 정강정책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당규상 당원규정 개정안 등이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이낙연 24.6% vs 이재명 23.3%

리얼미터 차기 대권 여론조사…이재명, 한달새 3.7%P ↑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24~28일 전국 성인 2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전월보다 1.0%포인트 내린 24.6%로 조사됐다. 4개월 연속 하락이다.

반면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보다 3.7%포인트 오른 23.3%를 기록했다.

한때 25%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사람의 선호도 차이는 이번 조사에서 1.3%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서 ±1.9%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객관식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선호도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선호도는 4월 조사에서 선호도가 40%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4개월째 하락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41.7%·5.8%포인트 ↓)에서 낙

폭이 컸다. 대구·경북(15.8%·3.0%포인트 ↓), 경기·인천(22.5%·2.7%포인트 ↓) 등에서도 떨어졌다.

반면 이 지사는 지역별로 광주·전라(26.3%·9.3%포인트 ↑), 대전·충청·세종(26.2%·6.1%포인트 ↑), 서울(21.9%·5.4%포인트 ↑), 경기·인천(26.8%·1.6%포인트 ↑)에서 선호도가 상승했다.

선호도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내린 11.1%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9%), 무소속 홍준표 의원(5.0%),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2.9%)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의 선택지에 처음 포함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호도는 1.3%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5.9%, 모름·무응답은 2.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김종인 “외부인에 서울시장 후보 안 줘”

안철수와 연대 선긋기…“초선 의원서 나올 수도 있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빼앗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서울시장 후보 연대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2011년에 민주당이 어물어물하다가 외부인사(박원순 전 시장)에게 시장 후보를 빼앗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정욱 전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는 말에는 “짧기만 하다고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인물만 잘 낚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서울시의 복잡한 기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 “통합당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튀

어나와서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유희숙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물론 초선 의원 중에서 한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아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만나거나 통화한 일은 없다”면서도 “윤 총장은 자기 직군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 소신이 확실한 저런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다만 “검찰총장으로서서는 관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현시점에서 (대선 출마 등) 그다음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령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와 연관 지어 대선 도전 의사를 묻자 “떠날 시점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물어봐도 된다. 바이든은 미국에서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24시간 상담가능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